

과숫군의 사명

월간 양계가 창간된지 이번호로 11주년이 되었다. 11년전 창간사를 보면 당시(오봉국 발행인) 월간 양계가 양계인의 벗이 되고 길잡이가 될 것을 다짐 하면서

첫째, 국내외의 새로운 연구논문 및 기술 개발 등, 양계가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을 소개하고 국가간의 양계 정보를 교환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위치등을 제시하고

둘째, 양계인 상호간의 대화의 매개체가 되어 새롭고 산 지식을 서로 교환하여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양계가의 의사를 정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전달하고 양계업 발전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보호와 육성책을 건의하며

셋째, 유리한 양계 경영을 하기 위하여 양계 현황을 세밀히 관찰하며 그 움직임을 정확히 판단하는 동시에 수시로 변동하는 시장 동태를 파악하여 양계가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농업 근대화 과업에 기여할 것을 다짐 하였다.

그후 11년, 월간 양계는 이러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밑에서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제 양계가의 월간 양계에 대한 기대도 위의 창간호에서 밝힌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요 구하게 되었으며, 정책제안자로 양계 업계의 문제 해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매체 역할을 하여주고 각종 자료의 정리와 부대 사업의 강화 등 양계인의 대변지로서 양계인의 권익 보호의 대변지의 역할을 부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양계산물의 유통개선과 소비선전은 물론 광고의 개선 등 우리양계의 모든 문제 해결을 월간 양계를 중심으로한 양계 업계와 관련 업계의 중지를 모아 해결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어 편집진의 나약한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지고만 있다.

이렇게 본지에 대한 우리 업계의 기대가 큰 것은 본지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란 것을 생각할 때 비록 어깨는 무겁지만 감사하며 힘이 솟고 의욕이 생기는 것은 뒤에서 월간 양계를 지켜 보는 수많은 양축가가 있기 때문이다.

창간 11주년을 맞이하여 월간 양계는 외치기만 하는 파숫군의 역할에서 양계인을 지키는, 행동하는 잡지로의 역할 까지를 말아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업계의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월간 양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게 되어 이를

감당하고, 업계를 지키는 천병이 되려면 편집 담당자나 편집위원 뿐만 아니라, 전양계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하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양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변지가 되도록 양계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명실 상부한 양계인의 잡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양축업 계부담 80억 증가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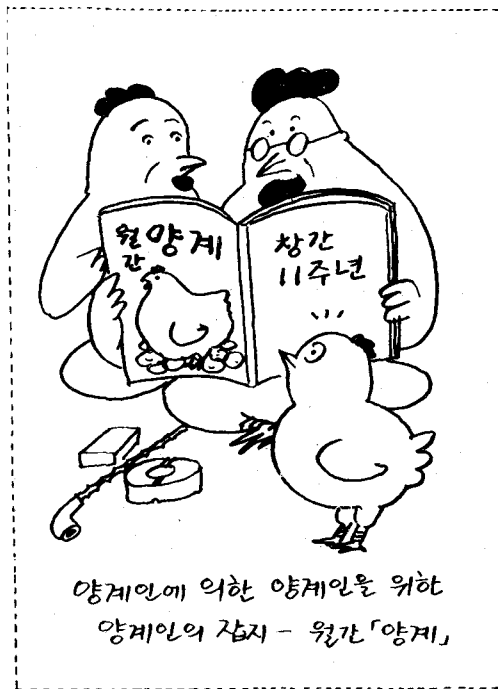
배합사료 가격이 금번 11월 1일부터 20~23% 기습 인상되었다.

양축가들은 원래 5~10%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예상보다 훨씬 대폭 인상되자 당혹함을 금할 길이 없어하고 있다.

현재 160 \$에 공급하고 있는 옥수수도 수입 가격이 약 175 \$선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로 생각해도 175 \$이 되어 옥수수 가격에서 만도 10% 정도가 인상되는 셈이다.

그외에 대두박 어분 등의 단백질 원료가격의 등귀와 강류의 대폭적인 인상(약 60%) 환율 인상(년초에 비하여 약 35% 인상) 등이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을 수 없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

반대로 10월 28일 현재 계란 값은 개당 32원(대란 농장 출하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아직도 하락세라고 한다. 부로일터도 950원에서 하루사이에 80원이 하락한 870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양축가들의 관심은 과연 사료가격이 몇%나 인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생산비가 오르고, 계란 닭고기 값이 오르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일부 양축가가 그 업을 그만두거나 또는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순서가 되풀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농협중앙회는 11월 1일 부터 금년말까지 금년도에 생산되는 국산 옥수수 65,000t을 작년보다 평균 20% 가량 수매가격을 인상해서 올해 총 생산예정량 105,000t의 60%인 65,000t을 수매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농협은 작년에도 8만톤을 수매하려다 55,875t을 kg당 1등 192원 2등 177원 등의 128.50원에 수매하여 전체 수매량의 76.5%인 42,746t을 평균으로 운임을 포함하여 kg당 214원 정도에 구매하여 금년 2월 부터 사용한바 있다.

국산 옥수수의 수분함량 등 품질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되어 거의 만족할 만 하다고 하며 지나치게 수입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배합사료 원료의 국산화라는 점에서도 비록 전체 소요량의 2~3%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양이지만 그 뜻은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옥수수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가격이 수입 옥수수가 kg당 75원 정도인데 비하여 2.85배 즉 거의 3배에 가까운 214원에 공급되어 진다는 것은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옥수수는 그 용도가 배합사료 원료 외에도 물엿이나 전분등 일반 공업용 원료로도 쓰이는데 국민의 기본 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축산물 생산 원자재인 배합사료 원료로 거의 대부분(76.5%)을 배정하고 물엿 등 주식이 아닌 기호식품의 생산에는 극히 적은 량을 배정하여 축산업계가 불평등 대우를 받는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금년도에 65,000t 수매량 중 작년보다도 더



많은 82%인 53,300t을 배합사료 용으로 11,700t은 가공용으로 쓸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국산 옥수수의 정확한 공급 가격은 알 수 없으나 작년 214원의 20%를 가산하면 256.80 정도가 되며 현재 수입 옥수수 kg당 105원과는 151.80원의 차가 생긴다.

이는 약 81억원(53,300t×151.80원)을 사료 공장이 아닌 양축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결과가 된다.

양계 경기가 비교적 호황일 때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나 요즘과 같이 각종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양계 산물 가격도 하락세로 전망이 불투명하며 그간 2년간의 불경기로 시달려온 양축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치고 피곤한 권투선수는 약한 한방의 펀치에도 KO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 우리로서는 관계 당국의 적절한 보완조치가 있기를 바란다.